비상계엄 후폭풍…자영업자 '비상 사태'

어수선한 시국에 회식・단체 모임 취소 잇따르며 '12월 특수' 실종 광주 지난해 폐업자 2만6000여명으로 껑충…끝모를 불황에 시름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이 이어지자 연말 회식, 단체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 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고 물가, 고금리로 삼중고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 안한 국내 정세로 '12월 특수'마저 실종된 것이다.

10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 인 A(50)씨는 "탄핵 정국 이후 단체예약을 통틀어 40명 자리가 취소됐다"고 토로했다.

12월이면 단체 회식을 위해 예약전화가 빗발치 고 했는데, 올해는 예약 취소 전화만 쏟아지고 있다 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 이후 시민들이 안전의 위협 을 느낀데다 불안한 정세에 '먹고 마시며 놀 때가 아니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회식을 취소하는 사례 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연말 특수까 지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다"며 "정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시급하게 정국을 안정시켜 야 서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 먹고 살 것이 아니 냐"고 하소연했다.

광산구 송정동에서 떡갈비 가게를 운영하는 B (47)씨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B씨 가게에서는 당 장 이번 주에만 단체 예약 4건이 줄줄이 취소됐다. 인원 수로 따지면 40명이 넘는 손님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 것이다.

B씨는 "불경기에 단체 예약 손님이 얼마나 소중 한데, 예약취소 연락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 려앉는다"며 "대통령은 왜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 해 하루하루 근근이 먹고 사는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했다.

광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코로나19 이후 수 년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된 국세 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폐업자 수는 2019년 2만 5331명, 2020년 2만 4639명, 2021년 2만 4079명, 2022년 2만 3101명으로 차츰 줄어들 다가 2023년 경기 침체로 2만 6064명으로 급증했

경제 침체로 인한 타격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컸다. 지난해 폐업자의 업종은 소매업(7056명, 27.0%), 서비스업(5922명, 22.6%), 음식업 (4741명, 18.1%)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소비 심리 가 위축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환율 상승, 주식시장 침체 등 여파로 금융권이 흔들리면

서 자영업자들은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 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받은 정부 대출에 대한 상 환 날짜가 도래하는 가운데 추가 정부 대출도 기약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벼랑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 이 기댈 곳이 없어지는 셈이다.

김형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최근 식 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자영업자들이 고사할 지 경이다. 오죽했으면 '손님들이 죄다 서울로 집회하 러 간 모양이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진다면 내 년에도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

>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강 노벨상 기념 '채소 나눔'

10일 광주시 북구 우산주공아파트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며 북구 새마을회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가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채소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고교생들, 대학 과목 이수땐 대학 학점도 인정

조선대-조선간호대 참여

내년부터 광주지역 고교생이 조선대와 조선간호 대에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해 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 고 '학교 밖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고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 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고교생이 대학 개설 과목을 이수하면 고

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 론 해당 대학에 진학하면 그 대학의 학점으로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은 지역 시도교육청과의 상호협약에 따 라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고 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 단계' 과목이다.

이후 시도교육청은학생(고1~고3) 수요를확정 해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은 대학 시설과 기자재 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때 수업을 받을 수 있

수업은 교수나 강사가 대학의 실험·실습실에서 대면으로 하게 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다만, 학생부에는 성적은 기재되지 않는다. 객관 적 학습 내용은 학생부에 기술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5개 시도교육청 관내 15개 대 학과 함께 시범 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는 수행 성과 등을 검토해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확대할 방

광주지역 참여대학은 조선대(과학, 예체능), 조 선간호대(간호)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과목 개설 준비를 마친 뒤 내 년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문수 의원직 상실하나…벌금 3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 수(순천·광양·곡성·구레 갑)의원에게 직위 상실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 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 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은 자신이 열세인 여론 조사 결 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알리는 내용의 글을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 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SNS 게시글 내용은 정 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9일 같은 법정 에서 진행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亞게임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의 추락

은퇴 후 LH에 취직…뇌물요구 혐의로 법정에

은퇴 후 공사에서 일하던 국제 스포츠대회 메 달리스트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0일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부 장판사 지혜선) 심리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A(43)씨에 대한 첫 재판기일이 진

LH에서 익산시 소라산지구 관련 업무를 담당 한 A씨는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강제집행을 지연 시켜주겠다며 금품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

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독촉에 시달려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A씨는 선수 은퇴 후 LH에 취업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해고되 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사형 구형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숨지게 한 박대성(30)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 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 (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박씨는 사이코패스 기 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사형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 박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추가 살 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어리 ^{딥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